

하나됨과 나눔

“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

〈 시편 119편 35절 〉

- 사랑방공동체 학교가 이번 주부터 개학을 합니다.
멋쟁이학교 23일(일), 꾸러기, 어린이학교 24일(월)
- 멋쟁이학교 개강여행이 24일(월)~27일(목)까지 지리산에서 있습니다.
28일(금)에는 수원에서 열리는 경기도 청소년 예술제에 참가합니다.
- 어린이학교 반별여행이 25일(화)~27일(목)까지 서울, 남양주, 수원
에서 있습니다.
- 지역별 사랑방 후반기 방모임이 이번 주간에 시작합니다. 방모임에
힘써 주십시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박태규 · 전향옥 집사 가정 (감사)

정낙귀 집사 · 정혜정 권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신협(헌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농협(학교후원회계좌) 사랑방공동체학교(정태일) 351-1165-8216-43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4 - 34 호

2026년 8월 23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공동체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

지난 8월 17일-19일 까지 경남 산청 민들레 공동체에서 한국공동체교회협의회(한공협) 리더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리더십수련회의 주제는 '공동체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이었습니다. 김인수 대표님(민들레 공동체)께서 인사말씀에 “이번 리더수련회에서는 우리의 공통의 기도이자 궁극의 소망인 ‘하나님 나라의 길’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열망과 기쁨을 나누길 원합니다”라는 글로 이번 수련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수련회에서는 오래간만에 반가운 분들을 만나고 서로 안부를 확인하면서 그간 공동체별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 소식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긴장된 마음과 몸도 풀며 함께 어울려 말 그대로 한바탕 노는 [행복 토스]라는 즐거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총회]도 하고 여성들의 모임인 [에제르 모임]도 가졌습니다. 한옥마을도 다녀오고 함께 티타임을 하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한공협이 나아갈 길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한공협 과제와 도전 1,2]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 특히 저녁모임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녁 모임 시간에는 한공협을 위해 애써주신 네 분의 어른들께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하고 이분들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날에는 정태일 목사님(사랑방공동체)과 조규남 목사님(행복교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태일 목사님께서 공동체를 시작하시게 된 삶의 배경을 시작으로 삶의 목적과 방향인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교회에 대해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운동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교육’이라고 하시면서 그간 교육과 관련된 활동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는 쉽게 누릴 수 없는 은혜이다.

부족한 종이 전적인 의탁(믿음)과 순교적인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하다”는 회고로 말씀을 마무리 하셨습니다.

기성교회의 원로목사님이시면서도 한공협에 초창기부터 계속 함께 하셨던 조규남 목사님께서 공동체론을 기초로 다시한번 공동체에 대해 생각해보고 정리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셨습니다. 기성 교회에서 어떻게 공동체적인 삶을 이뤄가고 계신지 삶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서 본인을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교회사역을 이뤄가는 ‘교회 공동체’라는 용어로 정의하셨습니다. 특별히 한국 기독교마리아자매회와의 인연을 나눠주셔서 목사님에 대한 이해가 더 넓어질 수 있었습니다.

둘 째 날에는 재소자들과의 생활을 시작으로 지금은 장애인들과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는 이재영장로님(오두막 공동체)과 디아코니아자매회의 이영숙 언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재영 장로님께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시작으로 다름에 익숙해지기를 권고하셨습니다.

“세상이 낯설게 보이고 하나님 말씀실천이 친숙하게 여겨지는 것” 이것이 거듭난 신앙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방법이 된다는 말씀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영숙 언님은 그냥 서 계시는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는 분이신데 그간 살아오신 본인의 삶의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라는 말씀에 ‘예’로 응답하셔서 평생을 독신의 몸으로 결핵환자들을 돌보며 사신 삶의 고백에 눈물이 절로 나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것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야겠다. 다짐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는 동지들임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일에 함께 하기로 다짐해 봅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장영미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211 317 / 216 (447)

기도 :

성경 : 고린도후서 8장

제목 : 고린도 교회의 구제활동과 손님(지도자)환대 부탁

1-15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구제활동을 요청하다.

해석: 교회가 어렵더라도 구제활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적용: 사랑방 공동체에게 맡겨진 구제활동을 끝까지 하자.

16-24 바울의 동역자인 디도와 한 형제를 부탁하다.

해석: 교회 방문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한다. 손님을 맞이할 때와
갈 때도 같은 마음으로 해야 한다.

적용: 서로 방문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예의를 갖추어 환대하자.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팀 켈러 목사님의 책 『고통에 답하다』를 통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의미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과 고통은 찾아오지만,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번 여름 공동체생활 기간에 저에게도 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10년 동안 함께한 강아지 랑이가 갑자기 뇌출혈로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상태가 많이 진행되어 회복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랑이를 위해 울며 기도하며 다시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호전되지 않았고, 랑이를 안락사로 보내주어야 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슬프고 힘든 순간이었지만, 마지막에는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랑이를 데려가신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랑이의 고통을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는 랑이가 하나님 곁에서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마음껏 뛰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슬픔과 이별의 고통이 조금씩 감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랑이를 쉽게 놓아주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랑이를 가장 좋은 곳으로 데려가셨다고 믿으며 떠나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고난을 바라보는 마음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과정이 우리를 더욱 깊은 믿음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초청의 말씀

* 예배의 찬송

* 기원의 기도

* 기원찬송

시 편 84 : 4-5

35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 용서의 말씀

* 신앙고백

고백의 찬송

공동기도

목회기도

갈라디아서 2 : 20

484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성가대 찬양

설 "수도자의 영성으로, 나그네의 자세로" 정재훈 목사

요한복음 17 : 9-19

289

설교자

따뜻한사랑방

의탁과 섬김의 삶

의탁의 기도

응답의 찬송

* 봉헌기도

* 영광찬송

* 위탁의 말씀

* 강복기도

491

288(3)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박태규 전향옥 / 봉헌위원 : 진정행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에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이흥인 정아인

예 배

공동기도문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상 속에서 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어진 길을 정성을 다해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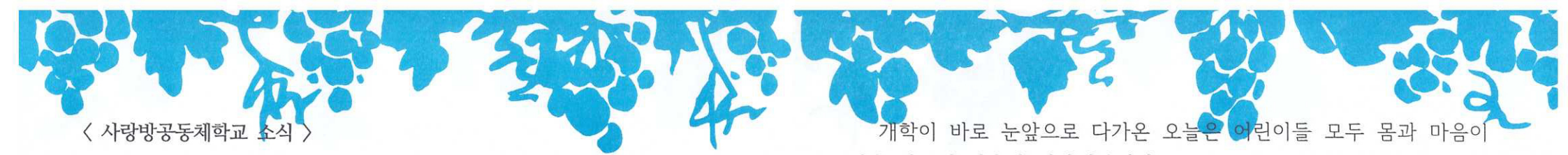
수도자의 영성으로, 나그네의 자세로

속하지 않는 거룩. 십자가 수난을 앞두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거룩은 세상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길. 순례자는 명확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배낭으로 길을 걷습니다. 발에 통증이 찾아와도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함께 걷다보면 같이 걸어가는 동행이 생겨나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묵묵히 전진합니다.

수도자의 정주. 수도자는 주어진 자리를 끝까지 지킵니다. 문제가 있다고 환경을 피해 도망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일상 속에서도 끝까지 머물며 자신의 내면을 갈고 닦습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깊어짐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세상의 거룩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이승호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개학이 다가왔습니다.

꾸러기 부모님들께서 장난감과 이불, 카페트를 가져가 깨끗이 닦고 빨며 새 학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교사들은 2학기를 준비하는 회의를 하고 자연예배당과 자료실, 교무실을 구석구석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꾸러기들의 웃고 떠들며 노는 소리가 자연예배당에 가득 차겠지요!

새 학기에도 꾸러기들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라나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 교사 : 전향옥 >

어린이학교

7월 15일부터 시작됐던 여름방학이 오늘로서 끝이 나고 내일이면 2학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오랜만에 어린이 친구들의 흥분과 소란으로 학교 곳곳이 시끌벅적하겠지요.

어린이들은 그동안 늦잠도 자고 빈둥거려보기도 하고 가족여행, 물놀이,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 또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기 같은 즐거운 시간도 많이 가졌다고들 합니다.

선생님들은 방학 동안 매일 제습기를 비우며 교실 환경을 관리하고 도서 정리와 2학기 수업 준비도 하고 반별여행을 비롯한 여행이나 행사 준비도 짬짬이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주중에는 10월에 있을 제주 올레길 도보여행 답사를 두 분 선생님이 무사히 잘 다녀오셨습니다.

개학이 바로 눈앞으로 다가온 오늘은 어린이들 모두 몸과 마음이 더욱 바쁘지 않을까 짐작해봅니다.

내일 개학과 함께 바로 방학숙제 검사가 있고, 이어서 2학기 임원 선거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인 화요일부터 2박 3일 간 반별로 여행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시작부터 박진감과 속도감이 넘쳐나네요.

어린이학교의 새 학기를 위해, 반별로 각처로 떠나는 여행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교사 : 전선희 >

멋쟁이학교

2학기가 곧 시작합니다. 갈수록 줄어가는 방학을 더 누리고픈 마음들이 크지만, 약속의 시간은 다가왔습니다. 21일 금요일, 예비소집일에 풍물 연습을 하는 멋쟁이들이 일찍 등교했습니다. 풍물 선생님과 함께 하는 연습시간을 마치고 식탁에 왁자지껄 앉으니, 그동안의 허전함이 채워지는 분위기가 돌았습니다. 오후 일찍 학교에 모인 멋쟁이들의 얼굴들도 참 반갑고 화사했습니다. 그 후에는 함께 지낼 생활공간들을 청소하고 정비하면서 땀을 흘렸습니다. 중간에 교장선생님이 주신 간식을 먹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다들 궁금해하던 지리산 여행의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팀원들끼리 가져올 반찬을 의논하면서 맛있게 먹을 식단에 기대가 부풀기도 했습니다. 산행을 하기 어려운 환자들도 나름의 계획들을 다지면서, 예비소집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곧 2학기가 시작합니다. 힘든 환경을 함께 극복해나가는 지리산 여행을 해내면서, 멋진 시작을 이뤄내길 기대해봅니다.

< 교사 : 이어진 >



孤旅 (홀로 떠나는 여행)

누군가는 여행을 “내가 지켜워진 곳에서 다른 사람이 지켜워진 곳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나에게 여행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일보다 여행을 떠나지 않으면 내가 있는 곳이 세상의 전부가 된다. 여행을 하고 나서야 세상이 더 커진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내 눈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다. 특별한 계획도 목표도 없이 정해진 것은 목적지와 비행기 표뿐이었다. 이번 여행에서는 변화가보다 박물관과 미술관, 대학 도서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골목과 거리를 걸었다. 혼자 여행을 하면서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삶의 방식에서 잠시 벗어나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다.

길가에 우연히 발견했던 ‘校园书店’이라는 작은 기독교 서점에 들어갔다. 책을 몇 권 사고 나오려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다. 직원에게 우산을 살 곳을 물었더니, 직원은 서점에서 우산을 팔지는 않지만 누군가를 위해 준비해 둔 ‘사랑의 우산’이라며 한 자루를 건네주었다. 밖에는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지만 그 작은 친절 때문에 마음은 오랫동안 따뜻했다. 기차역에 도착한 뒤 나는 그 우산을 벤치에 걸어두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그 따뜻함이 이어지기를 바라면서였다.

그날 다른 도시에 향한 기차 안에서 읽은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도록 하는 통로이다”라는 디트리히 본회퍼의 문장이 오래 마음에 남기도 했다.

여행에서 늘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것은 유명한 관광지나 맛있는 음식이 아니었다. 결국 여행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과 그들이 건네준 작은 친절과 그들과의 대화였다.

디아코니아 사랑방 저경하 사모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이어진 전도사

찬 송 : 335장, 312장

성 경 : 신명기 13장 1절~4절

말 씀 : 유혹을 물리치도록 하자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기후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최근 거제 지역에 사흘간 약 10m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외에도 발생하고 있는 폭염, 태풍, 가뭄, 홍수 등의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한공협 수련회를 위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전국 곳곳의 공동체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한공협 수련회가 경남 산청 민들레공동체에서 있습니다. 함께 교류하고 연합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 위해

1) 어린이학교 도보여행 답사를 위해서

2) 수술 등 몸이 아프거나 회복중인 지체들을 위해서

3) 공동체학교 시작 준비 중인데, 순조롭게 이뤄지기를

<생활공동체 소식>

8/17-19까지 경남 산청 민들레 공동체에서 있었던 한공협 리더십 수련회에 다섯분이 다녀오셨습니다.

선생님들인 식구들은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주변 청소와 여러 준비들로 바쁜 한 주였습니다.

영농팀은 비가 오는 중에도 고추를 수확하여 말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 분들의 노고로 큰 피해 없이 고추가 잘 자라주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장영미 전도사>